

로어대역사전편찬에서 이국정서어휘와 관련한 문제

최 장 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려면 외국어사전을 많이 만들어 내보내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61권 253페이지)

외국어교육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외국어대역사전을 더 많이 편찬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된 외국어대역사전을 편찬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전의 목적에 부합되면서도 독자들의 외국어학습과 실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게 올림말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대역을 정확히 제시하는것이다.

외국어학습과 실천에서는 불가피하게 이국정서어휘와 맞닿게 되며 그것을 대역사전에 옳게 반영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서로 다른 두 언어의 어휘구성을 대비하여보면 어휘적의미와 문체론적빛깔에서 일치하는 등가적어휘들이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것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이국정서어휘란 한 언어소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관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물현상들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로어에서는 이 어휘를 экзотизмы 또는 экзо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라고 부른다. 로어에서 экзотика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기원되었는데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에 특징적이면서 다른 지역 및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자연, 일상생활, 예술 등과 관련한 사물현상》을 의미한다.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볼 때 로어에서 다음의 단어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 레: паранджа - (이슬람교녀성의) 면사포
феска - (튀르키예인들의) 빨간 펠트모자
раджа - (인디아의) 령주
иглу - (에스키모인의) 얼음집
вигвам - (북아메리카원주민의) 나무껍질 또는 가죽으로 지은 집
пагода -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불교탑
конфедератка - (뿔스까군대의) 사각모

로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위의 단어들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하는 다른 나라의 생활양상과 결부하여 인식하게 된다.

이국정서어휘부류에는 다른 나라의 생활양상을 나타내지만 자기 나라에 존재하는 유사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속한다.

- 레: гарсон -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요리점의) 접대원
кельнер - (도이칠란드에서 려관이나 요리점의) 접대원, 급사

феллах – (아랍나라들의) 토착농민

горилка – (우크라이나의) 독한 술

кэб – (영국에서 말 한필이 끄는) 시내마차

실례의 로어단어들이 의미하는 대상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고있는 것과 류사하지만 언어학적으로 해당 민족의 생활특성을 나타내는 이국정서어휘로 된다.

이국정서어휘는 대상지역이 다를뿐 대비의 기초로 되는 언어의 어휘와 완전한 동의적 관계에 놓일수 있다. 실례로 《각하, 씨》, 《교회당》을 가리키는 로어단어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이국정서어휘들을 들수 있다.

례: • господин – мистер(영어), мсье(프랑스어), герр(도이칠란드어), пан(폴스까어), сеньор(에스빠냐어), синьор(이탈리아어)

• церковь – костёл(카톨릭교교회당), мечеть(이슬람교사원), синагога(유대교레배당)

이국정서어휘는 대비하는 언어의 어휘와 동의적이면서도 명백한 보충적뜻빛갈을 나타 내기도 한다. 실례로 рейх(제국)는 로어의 империя와 동의어이지만 도이칠란드에서의 파 쏘통치시기를 녀두에 둔다. 따라서 각이한 력사적시기에 여러 나라들에 존재한 《제국》이라는 통치체제를 가리킬 때 무턱대고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국정서어휘는 어원적측면이 아니라 해당한 개념의 생소한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되 기때문에 여기에는 палата общин(영국국회하원)과 같이 의미그대로 번역한 어휘뿐아니라 земля(도이칠란드의 행정구역단위인 《주》)처럼 어느 한 의미에서 특이한 외국현실을 나타 내는 모국어의 단어도 속할수 있다.

일정한 나라에만 특징적이던 사물현상은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 전파 될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 이국정서어휘였던 단어가 일반단어로 전환될수 있다.

례: соевый соус(간장), мотель(자동차려행자호텔), кемпинг(자동차려행자숙영지)

실례에 나오는 우리 나라의 《간장》은 원동지역을 비롯하여 로씨야사람들의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있으며 영어에서 들어온 мотель, кемпинг는 현재 로어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고있다. 때문에 로어에서 이 단어들은 이국정서어휘로부터 일반어휘로 전환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한 언어에서 이국정서어휘로 간주되는 단어가 그것이 생겨난 원천언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된다. 실례로 самовар(싸모와르)는 조선어나 영어에서는 이국정서어휘이지만 로어에서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лорд(영국귀족호칭인 《경》), пицца(이탈리아지짐 《삐짜》)는 조선어와 로어에서 다같이 이국정서어휘이지만 원천언어들에서는 일반적인 단어로 된다.

외국어실천에서 이국정서어휘가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대역사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어휘부류를 필수적으로 올리고있다.

대역사전편찬리론에서는 이국정서어휘를 원어, 역어와의 관계에 따라 외적이국정서어휘와 내적이국정서어휘로 구분하고있다.

외적이국정서어휘는 대역사전의 원어와 역어에서 다같이 이국정서어휘로 간주되는 어휘들이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조건은 해당한 어휘가 두 언어에서 다같이 쓰이는것이다. 내적이국정서어휘는 원어와 역어가운데서 한 언어에서는 일반어휘이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이국정서어휘로 되는 어휘이다.

조선어와 로어에 있어서 외적이국정서어휘의 실례로는 **минарет**(이슬람교사원의 탑), **шейх**(아랍나라들의 족장), **трагтория**(서유럽의 고급식당), **регби**(럭비) 등을 들수 있으며 《씨름》, 《지게》, 《단고기》, 《된장》, **валенки**(겨울펠트장화), **черный хлеб**(검은 빵) 등은 내적이국정서어휘들이다.

로어대역사전에 이국정서어휘를 올리는데서는 물론 다른 어휘부류들과 마찬가지로 사용빈도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로어대역사전의 올림말작성에서는 원어단어들의 사용빈도수에 대한 연구자료와 함께 역어소유자들의 특징(해당 나라의 정치구조, 역사, 일상생활 등)에 대한 자료도 넘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단어들은 비록 일상회화에서 사용빈도수가 낮다고 하여도 여러 도서들에서 자주 맞다들게 된다. 실례로 조선어에서 《지게》, 《간장》, 《온돌》과 같은 단어들, 로어에서 **сметана**(쓰메파나, 우유크림), **сарафан**(싸라판, 소매없는 농촌녀자옷) 등은 사용빈도수가 높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언어실천에서 맞다드는 경우가 드문히 있는것이다.

로어대역사전편찬에서는 내적이국정서어휘와 외적이국정서어휘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원어소유자들과 역어소유자들사이의 교제에서는 외적이국정서어휘에 비하여 내적이국정서어휘들이 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외적이국정서어휘는 두 언어에서 비교적 널리 전파되고 그 수량도 많지 않다. 한편 내적이국정서어휘는 구체적인 한 언어와 관계되는것이기때문에 따져놓고보면 범위가 크고 언어실천에서 다양하게 쓰이게 된다. 그리고 사전을 리용하는 독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며 해당 외국어실천에서 자주 맞다드는것도 다름아닌 내적이국정서어휘들이다.

따라서 대역사전에는 내적이국정서어휘부터 광범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로사전인 경우에는 이미 로어에 스며들어 쓰이고있는 《주체》(**чучхе**), 《태권도》(**тхэквондо**), 《김치》(**кимчхи**), 《간장》(**соевый соус**), 《된장》(**соевая паста**)과 같은 어휘들을 올려야 하며 로조사전에는 **колбаса**(콜바싸), **водка**(위드까), **квас**(크와스), **самбо**(쌈보), **творог**(응결우유), **самовар**(싸모와르), **сарафан**(싸라판) 같은것을 올려야 한다.

외적이국정서어휘를 대역사전에 반영할 때에는 사용빈도수와 함께 두 언어소유자들의 생활에서 그 단어가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어의 지위는 두 나라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의 성격에 따라 규정할수 있다. 실례로 **danebrog**(단마르크국기의 명칭)는 도이쉴란드어나 로어에 있어서 다같이 이국정서어휘이며 더우기 도이쉴란드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쓰인다. 때문에 단어 **данеброг**를 로어-도이쉴란드어사전이나 도이쉴란드어-로어사전에 올리는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로조사전에 반영할 필요가 별로 제기되지 않는다.

한편 끼르기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사용하는 《손잡이가 없고 우가 벌어진 토기그릇》을 로어에서 **пиала**라고 하는데 로씨야와 이 지역 나라들사이의 긴밀한 력사적관계로 하여 이 단어는 로어의 어휘구성에 확고히 자리잡았다. 따라서 로어를 원어로 하는 대역사전에는 이 단어를 반영하는것이 타당한것이다.

로어대역사전에서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대역을 밝힐 때 필요에 따라 지명이나 인명과 마찬가지로 보충적인 설명을 줄수 있다. 많은 경우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대역에서 음역대

역방식을 적용하기때문에 원어에 대한 어감이 부족한 독자들은 보충설명이 없으면 해당 올림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수 있다. 이국정서어휘가 역어소유자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개념을 나타내기때문에 독자들은 보충설명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레: сметана - 쓰메타나, 우유크림 (인공적으로 섞은 우유에 뜬 거품같은 기름)

пельмени - 뽀메니, 고기만두 (고기를 분쇄하여 소를 넣은것)

квас - 크와스 (보리길금으로 만든 알콜성청량음료)

온돌 - ондор (утеплённый пол в корейском доме)

김치 - кимчхи (солёные овощи с перцем)

지게 - чиге (приспособление для переноски груза на спине)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보충설명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전의 과학성과 품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보충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편찬자가 원어주석사전의 자료를 면밀히 연구하는것과 함께 역어소유자들의 언어생활, 해당 나라의 력사, 문화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보충설명을 잘하지 못하면 독자들이 외국어본문을 이해하고 번역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실례로 일부 로조사전들에서는 올림말명사 фюрер에 대하여 《총통》이라고만 대역을 주고있다. 로어실천경험이 부족하거나 로어소유수준이 높지 못한 독자는 력사적으로 여러 나라들에 존재한 《총통》이라는 직위를 모두 이 단어로 이해할수 있다. 사실 фюрер가 나타내는 《총통》이라는 의미는 도이칠란드에서의 3제국시기 즉 20세기 30-40년대의 파쑈통치시기를 념두에 둔것이므로 사전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밝혀주어야 한다.

레: фюрер - 총통 (도이칠란드에서 20세기 30-40년대의 파쑈통치시기에 해당함)

로어대역사전에서 독자들에게 이국정서어휘에 대한 대역과 보충설명을 과학적으로,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는 사전편찬자가 높은 외국어자질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풍부한 문화배경지식과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로어대역사전에 올릴 이국정서어휘를 선택하는데서는 원어와 역어, 특히 원어의 주석사전이나 외래어사전의 자료에 준하여야 한다. 개별적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쓰인 단어라고 하여 과학적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올릴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대역사전에는 해당 나라에서 전사회적으로 사용되거나 이해되는 어휘들이 반영되어야 하기때문에 사전편찬자의 주관적의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어휘연구자료에 의거하는것은 사전의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로조사전을 비롯한 로어대역사전편찬에서는 이국정서어휘를 옳게 반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바로 정하고 올림말선정과 대역에서 그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국어대역사전편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외국어사전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대역사전, 이국정서어휘